

# 영어 발음교육의 문제점과 해결책\*

강낙중(연암공업대학)

## <차 례>

- |                     |                     |
|---------------------|---------------------|
| 1. 머리말              | 5. 발음교육에 고려할 사항     |
| 2. 시중 발음 학습서의 실태    | 6. 구체적인 발음지도법 개선 사례 |
| 3. 발음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  | 7. 맺음말              |
| 4. 영어교육과의 발음교육의 문제점 |                     |

## <Abstract>

### Problems with English Pronunciation Education and Their Solution

Nak-Joong Ka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olve problems with English pronunciation education and to correct the misbelief that English pronunciation can be taught effectively by native speakers or good speakers.

Best sellers have many mistakes even in the description of sounds and most English education departments in national universities teach English phonetics theoretically only for 1 semester. More than 10 years' investigation into native speakers' and good speakers' teaching methods in various ways confirmed that they couldn't teach English pronunciation effectively.

To teach effectively to the students who don't know English phonetics teachers should have a theoretical and practical knowledge of phonetics of English and students' dialects and the abilities to find the same or similar English sounds their students can make in normal or abnormal situations, to make both correct sounds and incorrect ones their students can make and to make them perceive the differences by using various ways.

\* 본 연구는 2000년도 연암공업대학의 교내 학술연구비로 이루어진 것임.

## 1. 머리말

국제화 시대에 영어가 경쟁력이라는 의식이 전 국민에게 확산되면서 각종 영어 교재가 쏟아져 나오고 각종 방송매체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영어의 중요성을 정책에 반영한, 교육부의 영어로 하는 수업의 시행 결정으로 발음 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방송매체에서도 각종 발음법을 소개하고 기획보도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기 어렵고 시중에 나와 있는 각종 발음법에 관한 책도 기존의 방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의 발음법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도 온 국민이 발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발음교육에 개선점이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처음부터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다. 잘못 배운 발음을 교정하는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발음교육이다.

음성학의 조음점, 조음 방식조차 제대로 기술되어 있지 않은 책이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 발음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발음교육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8개 국립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조교와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과 출신 조교가 아니거나 다른 이유로 답변을 거부한 2개 대학을 제외한 6개 대학 중 1개 대학은 음성학 개론이 선택으로 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한 학기 시행했다. 이론 중심교육으로 실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학생이 발음이 틀렸을 때 교정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은 거의 배운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본 논문은 열 이상의 영어 원어민의 발음교육 실태 조사와 필자의 발음교육 경험, 대학원 재학 중에 배운 음성학의 이론과 실습, 음성학회의 일반음성학 실습연수를 기반으로 필자의 일본어, 중국어 발음 공부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발음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음성학을 모르는 일반 학습자가 쉽게 익힐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영어 발음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있다.

## 2. 시중 발음 학습서의 실태

시중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에 놓여, 가장 잘 팔리는 책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영어 발음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인용, 분석했을 뿐 예로 든 책을 쓴 저자나 출판사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은 없음을 밝혀둔다.

(1) *영어의 바다에 헤엄쳐라* (하광호(1996), 에디터)

대부분의 발음이 설명이 부족하거나 잘못되어 있다. 그 중 일부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p: “한국어의 “프”와 비슷하나 아주 같지는 않다.”(국어 지식 결여)
- m: “한국어의 “므”는 두 입술을 거의 대지 않고 소리를 내지만 m은 b, p음과 똑같은 입술 모양을 하고 소리를 낸다.”(국어, 조음점, 조음방식 지식 결여)
- f, v: “이와 입술을 맞닥뜨려 내는 소리 — f, v”(조음방식 지식 결여)
- d, n, t, s, z: “혀를 입천장 앞부분에 대면서 내는 소리 — d, n, t, s, z”(조음점, 조음방식 지식 결여)
- k: “한국사람은 이 발음을 입천장의 앞부분에서 내려고 하니까 잘 안 된다.”(국어 지식 결여)
- ng: “한국사람은 “봉고”차를 발음할 때 혀가 앞에서 놀지만 미국사람은 혀가 뒤에서 움직인다.”(국어 지식 결여)
- th: “혀를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끼고 내는 소리 — th”(조음방식 지식 결여)
- j: “judge의 j도 무성음으로 소리를 낸다....white shoes를 빨리 발음하면 why shoes와 똑같이 들린다.” (조음방식: 유무성, 성문과열음 지식 결여)

(2) *헨리 홍 말문트기 영어구구단* (헨리 홍(1999), 학원사)

발음 설명의 대부분이 맞지 않거나 음성학적인 근거가 없으며 일반인들에게 이 책대로 발음을 시키면 이상한 발음이 나온다. 그 중의 일부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헨리홍 영어발음공식

...<Th>발음은 (먼저 혀를 물고) [ㅎ드으] 혹은 [ㅎ뜨으]로, <V>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누르며) [브 흐]로, <F>는 (윗니에 눌린 아랫입술을 일순간에 터뜨리며) [프 흐]로, <L>은 [을+리]로, <R>은 [우+리](<R>이 단어의 끝에 올 때는 [+어])로 표기했음을 알립니다.(조음방식 지식 결여)

<Fan>은 [팬]도 아니고 [훤]도 아니다. 윗니를 아랫입술을 눌러 막았다가 일시에 폭발시키는 완전한 폭발음이다.(조음방식: 마찰음 지식 결여)

Can't는 [캐에앤]으로 발음해야 한다....<T>는 무성음으로 바람소리만 들린다. 그러므로 들리지 않는다.(조음방식: 내파음 지식 결여)

<L>은 혀끝을 윗니 안쪽에 붙였다가 뗄 때 내는 발음...(조음방식: 설측 지속음 지식 결여)

Have a는 [햐허어] 혹은 [햐훤](조음점, 조음방식 지식 결여)

## (3) 피자강사 정인석의 영어한풀이 (정인석(1999), 동아일보사)

발음 설명은 대부분 음성학적인 근거가 없다. 그 중 일부분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굴절음이라는 말을 굴절음이 아닌 음에 쓰고 있다.
- ② 모음 중 혀의 긴장음과 비긴장음도 구분하고 있지 않다. [i], [u], [æ], [e]
- ③ 모음은 발음시 혀의 위치에 따라 수많은 변이음이 있는데도 이에 관한 설명이 없다.
- ④ 지속음과 순간음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v], [f], [l], [θ], [ð], 등
- ⑤ 유성음과 무성음도 구분하고 못하고 있다. [v]와 [f], [θ]와 [ð], [b], [d], [g], 등
- ⑥ 마찰음과 파열음도 구분하고 못하고 있다. [v], [f], [θ], [ð], [ʒ], 등
- ⑦ 비음과 구강음도 구분하고 못하고 있다. [n], [m]

“How much is it? [ha:mʌfɪzɪt] 여기서 마지막 [i] 모음은 마치 [e]처럼 짧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굴절음인 영어 특유의 발음인데...”

“on the...를 [ɔnə]로 연습시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on a...와 차이점은?)

“That’s the way it goes...[ðætʰəuei(t)go:z]”(반자음, 조음방식: glottal stop의 지식 결여)

“알파벳의 모음 발성음은 모두가 동일한 음색, 음도, 높낮이...”(조음방식 지식 결여)

“h는 유성음일 경우와 무성음일 경우가 있습니다.”(조음방식: 유무성 지식 결여)

“[i] 입술을 최대한으로 벌린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의 굴절음.”(조음방식 지식 결여)

“[ə] 입술을 상하로 조금 벌린 형태를 유지하면서 [어]의 굴절음”(조음방식 지식 결여)

“[e] 입술을 옆으로 최대한 벌린 상태를 유지하면서 [에]의 굴절음(조음방식 지식 결여)

“[s][z] 입술을 옆으로 최대한 벌린 상태에서 s는 [스], z는 [즈]의 굴절음(조음점, 조음방식 지식 결여)

“[tʃ][dʒ] 입술을 모아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tʃ]는 [츠], [dʒ]는 [즈]의 소리가 울리면서 모아지는 굴절음 소리를 냅니다.”(조음방식: 유무성 지식 결여)

“[ʃ] 입술을 모아서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쉬]의 소리가 울리면서 모아지는 굴절음 소리를 냅니다.”(조음방식: 유무성 지식 결여)

“[m][b][p] 입을 다물었다가 급하게 옆으로 엷게 벌리면서 [m]은 [므], [b]는 [버], [p]는 [퍼] 소리가 입술 밖으로 퍼지듯이 음을 짧게 냅니다.”(조음방식: 구강음, 비음, 국어 지식 결여)

“[k][g][h] 아랫입술의 좌우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면서 최대한 사각형을 만든 상태에서 윗입술은 움직이지 않고 [k]는 [크], [g]는 [그], [h]는 [흐] 처럼 된소리를 낸다.”(조음방식, 국어 지식 결여)

“[t] 혀끝을 윗니 끝에 대고 있다가 입술을 좌우로 벌리면서 혀를 윗니 끝에서 떼면서 짧게 내뱉듯이 [트] 소리를 냅니다.”(조음점, 국어 지식 결여)

“[d] 혀를 윗니 안쪽에 대고 있다가 입술을 좌우로 벌리면서 혀를 윗니 안쪽에서 떼면서 짧게 내뱉듯이 [드] 소리를 낸다.”(조음방식, 국어 지식 결여)

“[n] 윗니와 아랫니로 혀끝을 조금 물고 있다가 입술을 좌우로 벌리면서 물었던 혀를 떼면서 짧게 내뱉듯이 [느] 소리를 냅니다.”(조음점, 조음방식(비음) 지식 결여)

“[m][ɱ] 윗니와 아랫니로 혀 중간까지 가볍게 물면서 빼냈다가 안쪽으로 들이밀면서 [m]는 [쓰], [ɱ]는 [뜨]소리를 둔탁한 느낌으로 냅니다.”(조음방식(마찰음) 지식 결여)

“[l] 혀끝으로 입천장을 누르면서 [리] 소리를 박차듯이 내는 순간 혀는 입안 중간에 위치하면서 경쾌하고 맑은 소리가 납니다.”(조음방식 (설측 지속음) 지식 결여)

“[r] 혀를 말아 입안 중간에 띄우고, 약하게 떨면서 맑지 못한 [르] 소리를 내면서, 입술을 좌우로 벌리고 타원형에 가까운 모양을 냅니다.”(조음방식(원순성) 지식 결여)

“[f] 윗니로 아래 입술 안쪽을 물었다가 떼면서 약하게 [프] 소리처럼 내면서 입술은 좌우로 움직이는 형태가 됩니다.”(조음방식(마찰음) 지식 결여)

“[v] 윗니로 아래 입술 안쪽을 물었다가 떼면서 약하게 [브] 소리처럼 내면서 입술은 좌우로 움직이는 형태가 됩니다.”(조음방식(마찰음) 지식 결여)

“[ŋ] 입술을 가볍게 모아서 옆으로 벌리면서 [옹]에 가까운 소리.”(조음방식 지식 결여)

(4) 립 킴의 미국 영어발음 무작정 따라하기 (립 킴, 오경은(1999), 도서출판 길벗)

“미국인들은 shop도 ‘숍’이 아니라 shop[ʃɒp/ʃɑp]으로 발음.”(영미음 발음기호 지식 결여)

“[i] sound는...턱이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에’에 가까운 소리.”(조음방식 지식 결여)

“Rocky Mountains[마운흔즈]라고 ‘흔’하는 콧소리를 넣어 발음.”(비강파열 지식 결여)

“t는 강 모음과 약 모음 사이에 오면, ‘ㄹ’과 비슷한 굴리는 소리.” (조음방식 (flap) 지식 결여)

“-nt로 끝난 단어의 끝소리 [t]는 발음하지 않아야...” (조음방식(받침) 지식 결여)

“ant...앤(t)”(조음방식(받침) 지식 결여)

“[b]는 우리말 ‘ㅂ’이 아니에요. 윗입술과 아래 입술을 약간 말아 넣고 내는 소리여서 (으)ㅂ 정도로 발음해야 옳은 발음.”(조음방식(유성음) 지식 결여)

“첫소리로 나온 c의 [k] sound는 거친 소리. [z]보다 턱을 목 쪽으로 당기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발음하면 됩니다.” (조음방식 지식 결여)

“영어의 [d] 발음은 혀끝을 입천장의 돌출된 부분에 대고 목청을 울려내는 소리이다.” (조음점 지식 결여)

“[g]는 턱을 아래로, 즉 목 쪽으로 목구멍 깊숙한 곳에서 끌어올리듯 발음하세요.” (조음점, 방식 지식 결여)

“[ʒ]는 우리말 ‘쥬’처럼 입술을 앞으로 모으고 부드럽게 발음합니다.” (조음방식(마찰음과 파찰음, 유무성) 지식 결여)

“[l]은 혀끝을 윗니 뒤에 대고 ‘얼’ 하고 밀면서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l]은 style에서처럼 단어 끝에 오거나, film처럼 마지막 자음 바로 앞에 오면, 들릴 듯 말 듯 약화됩니다.” (조음점, 조음방식 지식 결여)

“[n]은 혀를 입천장에 댄 채로 [은-nnnn] 하면서”(조음점, 조음방식 지식 결여)

“미국식 발음 [ɔ]는 ‘오’가 아니에요. 일단 입 모양을 약간 오므리고 턱을 밑으로 당기면서 소리내어 보세요. 그러면 거의 [아]에 가깝게 들립니다. (모음 조음방식 지식 결여)

“사전에도 o[ou]라고 되어 있는데, 습관적으로 ‘오’라고 발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강 이중모음 지식 결여)

“[p]는 우리말 ‘ㅍ’과 좀 다른 음입니다. [b]와 같은 요령으로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약간 말아 넣고 성대를 울리지 않으면서 바람소리로 내야 미국식 발음.” (조음방식(파열음) 지식 결여)

“첫소리 [r]은 입천장에 닿지 않게 구부린 혀를 펴면서 ‘(으)r-’하고 내는 소리.” (조음방식(원순성) 지식 결여)

“[θ]는 혀를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살짝 내밀면서 가볍게 물고 바람을 내보내는 소리이다.”(조음방식(마찰, 지속음) 지식 결여)

“[ð]는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살짝 문 혀를 빼면서 내는 소리. 빠른 속도로 말할 때는 정관사 the, 인칭대명사 they/them, 부사 there 등의 th[ð]는 [n]처럼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조음방식(마찰음), 연음 지식 결여)

“[z]는 우리말 ‘ㅈ’과는 달리 혀를 입천장에 붙이지 말고 (으)zzz하고”(조음점, 유무성 지식 결여)

이렇게 인기 있는 발음 책을 쓴 저자들 중에는 영어음성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 이들 책에는 음성학 책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조음점과 조음방식마저도

제대로 기술되어 있지 않고 음성학 이론도 모르고 실습도 하지 않은 일반인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들의 방법으로 발음을 쉽게 배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발음을 숙달시킬 수밖에 없다.

### 3. 발음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

#### 3.1. 발음은 원어민에게 배워야 한다.

우리 나라에 와 있는 대부분의 영어 원어민(미국인, 영국인, 캐나다인 등)은 대학에서 음성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고 간혹 있다하더라도 학생들이 발음을 잘못했을 때 교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들이 발음교육에 사용하는 방법은 주로 따라하게 하는 모방법이다. 이런 모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 지극히 비효율적이다.

원어민이라도 영어발음을 잘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은 연구해 볼 필요도 없이 쉽게 알 수 있다. 대학도 나오고 한국어를 잘 하는 여러분이 외국인에게 한국어의 발음에 대해 뭘 가르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가르치는 외국인의 발음이 틀렸을 때 그 틀린 발음을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원어민은 발음지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필자가 십수 년에 걸친 원어민 강사의 발음지도 관찰과 원어민과의 발음지도법에 대한 토론, 실험을 통해 조사해 본 결과 극소수의 원어민이 조음점, 조음방식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었고, 대부분 자신의 발음을 따라하게 하는 모방법이었다. 이론적으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목표음에 가깝게 따라하지는 못했다. 대부분의 원어민은 무의식적으로 발음을 하기 때문에 의식적인 설명력이 없고, 빠른 발음을 의식적으로 느리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빠른 발음을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없었다. 또한 학습자 언어의 발음특징을 모르기 때문에 최소의 노력으로 단시간내에 가르칠 수 없었다.

#### 3.2.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잘 가르칠 것이다.

음성학에 대한 이론, 실습, 지도법을 배운 적이 없으면 외국에서 오래 살아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하는 사람이라도 앞에서 지적한 원어민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모방법이었다. 발음학습서를 쓴 앞의 4권의 저자 중 3명은 영어권에서 오래 살아 영어를 못한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발음에 관심이 많아 책을 쓴 저자이지만 조음점, 조음방식을 잘못 기술한 부분의 발음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겠는가? 설명이 잘못이니 자신의 발음을 모방하게 방법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물며 발음에 관해 배우지 않은 사람은 더욱 모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 4. 영어교육과의 발음교육의 문제점

음성학의 교육 기간의 적절성과 교육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8개 국립대 영어교육과 조교와의 전화 설문조사에서 조교가 타과 출신이거나 다른 이유로 응답하지 않은 2개 대학을 제외한 6개 대학의 응답결과로 보면 음성학개론은 한 학기 시행하고 있으면 1개 대학은 음성학개론이 선택과목으로 되어있었다. 한 학기로는 이론을 습득하기도 어려우며 실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다. 학생의 틀린 발음을 교정해 줄 수 있는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 4.1. 교육과정상의 문제점

모든 교육에서 고기를 낚아주기보다는 고기 낚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들 있지만 지금 중, 고등학교에서 과연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가? 또한 중, 고등학생의 입장에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가? 본인의 경험에 의하면 혼자서 공부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발음인 것 같다. 기초적인 발음만 되면 원어민의 발음이 담긴 회화책은 시중에 수없이 많다. 나머지는 어떻게 시간을 내어 연습을 하느냐하는 문제만 남는다. 본인은 중국어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대학원에서 배운 일반음성학 덕분에 중국어 원어민의 녹음이 담긴 회화책을 듣고 따라할 수 있어서 15일만에 3권을 공부한 적이 있다. 만약에 학원에서 중국인 원어민에게 배웠더라면 이렇게 빨리 공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를 보더라도 외국어 공부에서 발음이 얼마나 중요한가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비전공자인 학습자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원음에 가장 가깝게 가르치느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다양한 과정이 영어교육과에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영어교육과의 현행 교과과정을 보면 영어음성학이 얼마나 홀대받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다음은 어느 대학의 교과과정이다. 음성학은 필수과목도 아니고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다.



### 전공필수

#### 교과 내용학

- 1학년: 구어영어(1), 구어영어(2), 언어와 문화
- 2학년: 영어의 과거와 현재, 영어작문(1), 영어문학의 갈래와 흐름
- 3학년: 영어작문(2)

#### 교과 교육학

- 3학년: 영어교재론, 영어교육론, 영어듣기말하기지도론, 영어교수방법론
- 4학년: 영어문법지도론, 영어교육평가론, 영어과수업연구

### 전공선택

#### 교과 내용학

- 1학년: 영어독해(1)
- 2학년: 구어영어(3), 영어음성학개론, 영미희곡강독, 구어영어(4), 영미소설강독, 영미권문화배경
- 3학년: 영문법, 영미시강독, 구어영어(5), 구어영어(6), 언어습득론
- 4학년: 영어독해(2), 영어작문(3)

#### 교과 교육학

- 2학년: 영어드라마활용지도론, 영어교육현장연구,
- 3학년: 멀티미디어활용지도론, 영어시활용지도론, 영미소설활용지도론
- 4학년: 영어독해지도론, 영어작문지도론

## 4.2. 교육방법의 문제점

### 4.2.1. 음성학을 이룬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두의 유성음, [b]를 가르칠 때 이 발음은 폐에서 내보낸 공기가 입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두 입술을 붙여 막고 입안에서 압축시킨 뒤 성대를 울리면서 두 입술을 떼어 공기가 갑자기 터지게 해서 내는 소리라고 가르친다 하더라도 이 음을 음운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우리 학생들이 이 설명을 듣고 모방해 내기는 어렵다.

### 4.2.2. 비전공 학습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

어두 유성음 [b], [d], [g]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써왔던 것이 목의 앞쪽 성대 있는 곳에 손을 대고 성대가 울리는 진동을 느껴 보라는 것

이다. 이렇게 해서 성대가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감지해 영어의 어두 유성음의 발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어떤 사람은 dark l의 발음을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혀의 뒤가 올라간다고 보여주지만 음성학 훈련을 받지 않은 학생이 발음을 할 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알 리가 없다.

#### 4.2.3. 비전공 학습자가 자신의 발음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

‘확실히’의 ‘확’과 같이 자음 뒤에 [w]가 오는 경우에 경상도 사람은 조금만 신경을 쓰지 않으면 [w]를 빼고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영어만 가지고 연습을 하던 하는 동안에는 이런 발음을 정확하게 했다 하더라도 발음에 신경을 쓰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일상회화에서는 경상도 발음의 음운규칙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여 [w]를 빼고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시각적으로는 인식하지만 발음상으로는 인식하지 못하므로 의식적으로 발음하지 않는 한 [w]음을 넣어서 했는지 빼고 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학습자 자신이 자신의 발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4.2.4. 학습자가 사용하는 언어의 발음 특징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

배우는 사람이 쓰는 언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배우는 사람이 영어 발음을 잘 못했을 때 교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배우는 사람의 언어(방언)에 따라 어떤 것은 가르칠 필요가 없고 어떤 것은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르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경상도 사람은 자음 뒤에 [w]가 들어 있는 ‘확실히’의 확[hwak]을 [hak]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중모음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하나 표준어 사용자는 가르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다.

## 5. 발음교육에 고려해야 할 사항

### 5.1. 영어 조음음성학 이론과 실습

학생들에게 영어발음을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조음음성학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실습이 있어야 한다. 이런 지식과 실습이 결여되면 학생에게 발음을 설명조차 할 수 없게 된다. 단순한 모방방법으로 속달시킨, 교사 자신의 발음이 원어민의 발음에 가깝다하더라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영어발음을 가르치기에는 미

흡하다. 적어도 정확한 발음이 어디서 어떻게 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그렇게 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필요조건일 뿐 발음이 어디서 어떻게 나는지 교사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낼 수 있다하더라도 음성학에 대한 지식이 없는 학생이 쉽게 따라하기는 어렵다.

## 5.2. 국어음성학 이론과 실습

국어음성학에 관한 기초지식이 있어야 영어 음과 유사한 국어 음의 차이점을 알 수 있고 그 차이점을 알아야 학생의 잘못된 발음을 교정해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국어음성학을 모두 가르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영어 발음교육과 관련이 있는 국어 음을 음성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가르치고 실제로 발음을 할 수 있도록 실습을 시켜 유사한 영어 음과의 차이점을 알게 해야 한다.

교사가 가르칠 대상이 어느 지방 학생일지 알 수 없으므로 최소한의 국어음성학에 대한 지식과 실습이 있어야 가르치는 대상 학생이 하는 방언에서 영어의 어떤 음이 발음하기 어려운지 알 수 있고 그 차이점을 알아야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 5.3. 학습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

### 5.3.1.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말 속에서 영어 음과 유사한 음 찾기

일반 학습자는 음성학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조음점과 조음방식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쉽게 따라하기 어렵다.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은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말(정상, 비정상인의 말이든 외국인의 말이든 어떤 말이라도) 속에서 학습자가 정확하게 발음하기 어려운 영어 음과 같은 음을 찾거나 가장 유사한 음을 찾아 공통부분을 제외한 차이점만 가르치면 최소의 노력으로 가르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빠른 발음 water의 /t/를 이론적으로 조음점과 조음방식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따라하기는 어렵다. 이 /t/는 우리말 ‘다리’의 /ㄹ/과 같다고 가르치면 쉽게 가르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음을 찾기는 쉽지 않다. 김대원(1996)에서 영어의 음절 초성 설측음, /l/과 우리말 ‘달/dal/’의 음절 종성 설측음, ‘/ㄹ/’이 유사하니 ‘달’ 발음에 이어 멈춤 없이 light를 발음하고 light만 발음하라고 하고 있으나 이현복(1982, 말소리 제5호)에 의하면 우리말 ‘달’의 종성, ‘ㄹ’은 혀끝을 말아 윗니 잇몸에 대고 하는 혀끝말음소리이고 영어는 혀끝을 말지 않고 윗니 잇몸에 대고 하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런 차이점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관건이다. 혀끝에 힘을 빼고 어두

에 ‘ㄹ’이 들어있는 원어민이 하는 우리말을 흉내내면 좀 더 쉽게 영어 음에 가깝게 낼 수 있다. 따라서 유사한 음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차이점을 어떻게 쉽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와야 한다.

### 5.3.2. 우리말 단어 속에 영어 음 한 음 넣어 발음하기

학습자의 말속에 영어 음과 유사한 음이 없는 경우에 같은 조음위치에서 나는 학습자가 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음 대신에 해당 영어 음을 넣어 발음시켜 그 차이를 인식시키면 최소의 노력으로 영어 음을 인식시킬 수 있다. 유사한 음이 있는 경우에도 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f]음을 가르칠 때, 아래 입술을 약간 뒤집어 그 안쪽을 윗니에 공기가 겨우 새어나올 수 있을 만큼 접근시켜 좁은 틈을 만들고 성대를 울리지 않고 폐에서 공기를 불어내면 아래 입술과 윗니 사이의 좁은 틈을 통과하면서 마찰되어 나는 소리라고 가르칠 수 있으나 실제로 말을 할 때 마찰음으로 내지 않고 파열음으로 내고도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차이를 쉽게 인식시키려면 예를 들어, ‘파리’의 ‘ㅍ’을 아래 입술을 살짝 뒤집어 그 안쪽을 윗니에 대어 막고 폐에서 공기를 불어내어 입안에 압축시킨 뒤 성대를 울리지 않고 갑자기 아래 입술을 떼면 파열음으로 잘못 발음한 영어의 ‘f’음과 같은 음이 난다. 이 발음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 여러 번 따라하게 하여 이 음의 조음점을 익히게 한다. 이 음의 조음점을 익히고 나면 공기가 막히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아래 입술과 윗니 사이의 좁은 틈으로 마찰되어 새어 나오느냐만 가르치면 [f]음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낼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파리’의 ‘ㅍ’ 자리에 영어의 ‘f’를 넣어서 [f]를 보통 발음보다 몇 배 길게 발음하여 아래 입술을 윗니에 대고 파열시키는 발음과 차이를 인식시키면 [f]음은 처음부터 공기가 아래 입술과 윗니 사이로 새어 나온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f]음을 정확하게 익힐 수 있게 된다.

처음부터 공기가 막혀 틀리게 발음했으면 ‘파리’와 같이 들릴 것이고 정확하게 했으면 처음부터 공기가 새어나올 것이므로 학습자가 스스로 발음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음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르치면 쉽게 그 차이를 인식시킬 수 있다.

## 5.4. 학습자의 언어와 영어의 발음상의 두드러진 차이점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영어답게 발음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하는 말과 영어의 발음상 가장 두드러지게 다른, 하기 어려운 발음부터 가르쳐야 할 것이다. 이런 연구가 되어야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말 가운데 가장 영어답지 않은 부분은 이중모음의 발음과 받침이 둘 이상인 영어발음, 초성자음군의 발음이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가르쳐도 굉장히 영어다워진다. 영어는 옆으로 풀어써 받침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말보다 복잡하다. 우리말은 받침이 둘이라도 거의 대부분 하나만 발음하지만 영어는 받침이 3개면 3개 모두 발음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음운규칙이 우리말과 다른 경우에 우리말 음운규칙이 무의식적으로 적용되어 발음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차이를 인식시키고 바른 발음을 훈련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Henry를 우리말로 표기하면 ‘헨리’가 되는데 여기에 우리말의 ㄹ 앞의 ㄴ을 ㄹ로 발음하는 역행동화가 일어나 ‘헨리’는 [헨리]로 발음되나 영어의 Henry에는 이런 음운규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발음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다.

## 6. 구체적인 발음지도법 개선 사례

### 6.1. 어두의 유성음 [b], [d], [g]

boy의 어두 초성 유성음, [b]를 가르치면서 Wells J. C. and Colson G.(1971)에서 제시한 엄지와 검지를 후두 바깥쪽에 대고 유성을 발음할 때의 진동을 감지해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음성학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에게는 아주 어려운 방법이다.

예를 들어, baby, day, god의 어두음, [b], [d], [g]를 이런 방법으로 가르친다하더라도 제대로 내거나 감지하기는 아주 어렵다. 더구나 한 음만 내기는 더욱 어렵다. 이 음은 어두의 우리말에 없는 음이라 우리 나라 사람은 이 음을 인식하지 못한다. 모방법에 의해 이 음을 낼 수 있다하더라도 우리말 [ㅂ], [ㄸ], [ㄱ]와 각각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차이를 인식시키려면 우리말, ‘밥, 다리, 고기’의 바보 발음을 여러 번 흉내내게 한 다음 정상인의 발음과 차이를 인식시키면 된다. 어두 /ㅂ/, /ㄸ/, /ㄱ/의 바보 발음은 각각 영어의 [b], [d], [g]음과 같은 유성음이다. 연습시키는 방법은 바보 발음의 ‘밥’을 여러 번 반복하고 난 뒤에 곧바로 이어 boy를 여러 번 발음시킨다. 가르쳐보면 학습자는 바보 발음에 대한 정보가 이미 많아 누구나 쉽게 따라했고 유성음의 특징을 쉽게 인식했다.

### 6.2. dark l, [ɫ]

dark l은 자음이나 반자음 [w] 앞 혹은 어말에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혀끝은 윗니 잇몸에 붙이고 발음하는 clear l과는 달리 혀의 뒷부분이 올라가게 발음한다고 설명하면서 그림을 그려 보여주기도 하나 음성학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인은 혀

의 뒤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학습자가 할 수 있거나 알고 있는 발음을 이용하여 가르쳐야 한다.

민병철(1994)에서는 help[헤엘프], heel[히일], pool[푸울]과 같이 l앞의 모음을 길게 빼준다고 가르치고 있으나 heel을 [히일]과 같이 길게 빼도 혀의 뒷부분이 올라가지 않아 영어의 [h]음이 실현되지 않는다. 김대원(1996)에서는 syllabic l의 설명에서 [을]로 설명하고 있다. 혀의 뒷부분이 올라가는 모음 중의 하나가 [으]음이라 영어음과 유사하다. 그러나 우리말, [을]은 [으] 발음을 하고 [리]발음을 할 때 혀의 뒷부분이 내려와 영어의 [h]과는 다르다. 영어의 [h]은 우리말 [으]발음을 하면서 혀끝을 들어올려 윗니 잇몸에 닿게 하거나 접근시키도록 연습시켜야 한다. 이 때 혀끝에 힘을 빼 우리말과 같이 혀가 말려 올라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또한 방법은 미국인이 하는 우리말 ‘달 보세요.’를 흉내내면 [h]음과 우리말 ‘달’의 [리]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h]은 혀끝이 윗니 잇몸에 닿기도 하지만 닿지 않는 경우도 있어 좀 더 엄밀하게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film /l/은 혀끝이 윗니 잇몸에 닿지 않고 우리말 [으]와 거의 동일하다. school과 같이 후설 고모음이 선행하는 경우에는 [u]음을 발음하는 동안에 이미 혀의 뒷부분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u]발음을 좀더 길게 하면서 혀끝에 힘을 빼 말려 올라가지 않게 윗니 잇몸 쪽으로 약간 들어올리면 [h]음이 난다.

### 6.3. [θ], [ð]

[θ]를 조음점과 조음방식을 설명해서 공기가 겨우 새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혀끝을 윗니 끝에 접근시켜 성대를 울리지 않고 폐에서 공기를 불러 내보내면 혀끝과 윗니 사이의 좁은 틈으로 마찰되어 나는 소리라고 가르치고 시범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마찰음을 내지 못하고 파열음을 내고도 맞게 내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물며 혀를 양 이 사이에 물고 빼면서 발음한다고 가르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 나라 사람이 [θ]를 파열음으로 잘못하는 발음은 [ㅍ]음이다. 혀가 윗니에 닿아 공기가 새어 나오지 못하면 여러 가지 발음이 날 수 있다. 혀끝과 윗니가 서로 붙여 공기를 새어 나가지 못하게 입안에 막으면 [ㄷ], [ㅍ], [ㅌ], 등 여러 음이 난다.

[θ]음 가르치기 위해서 우선 학습자가 할 수 있는 혀끝을 윗니에 대고 하는 ‘따다’를 여러 번 따라하게 하여 혀끝을 윗니에 붙이는 조음점 연습을 시킨 뒤 ‘따다’의 /ㅍ/음 대신에 /ㅍ/를 넣어 발음해 보이고 여러 번 따라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나는 /ㅍ/음이 [θ]음이다.

이렇게 연습하면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발음의 정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잘못 발음하면 ‘따다’로 들리고 정확하게 하면 ‘싸다’로 들린다. 이렇게 [θ]음을 익

히고 나면 ‘오, 에, 우’, 등 과 같은 다른 모음을 넣어 연습시킨다.

#### 6.4. 성문 파열음 [ʔ]

apartment, network와 같이 자음 앞이나 반자음 [w] 앞에 오는 음절 말 /t/가 아주 빨리 발음될 때 [ʔ]로 발음된다. 김대원(1996, p.93)에서 bottle의 tt가 [ʔ]로 발음된다고 하나 아주 빠른 발음에서는 tap [t]로 발음되지 [ʔ]으로는 발음되지 않는다.

이 음은 태권도의 기합소리 ‘앗’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앗’의 받침 ‘ㅅ’을 [t]와 같이 혀끝을 윗니 잇몸에 대고 발음하면 그 소리가 작아 장난치는 것 같이 들린다. 실제로 태권도를 할 때와 같이 큰 소리로 기합을 넣을 때 입안을 보면 혀끝은 윗니 잇몸에 붙지 않고 아랫니에 붙은 채로 아래에 있어 입 속이 들여다 보인다. 이 발음의 /ㅅ/음이 [ʔ]음이다. 이 음은 혀끝을 윗니 잇몸에 붙여 입안에 공기를 압축시키지 않고 후두에 힘을 주어 성문을 막고 공기를 압축시켜 터뜨리는 소리다.

이 태권도 기합소리를 반복 발음시킨 뒤 ‘앗’의 ‘아’ 대신에 ‘오, 우, 이, 에, 어’ 등 다른 모음을 넣어 연습시킨다. 잘못 발음하면 장난치는 듯한 기합소리가 되고 정확하게 발음하면 정상적인 기합소리가 되어 학습자 스스로 발음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다.

#### 6.5. tap [ɾ]

미국영어에서 water의 /t/와 같이 모음 사이에 오고 바로 뒤에 오는 모음에 강세가 없을 때 아주 빨리 발음하면 /t/가 tap([ɾ])으로 발음된다. 이 음은 혀끝(tongue tip)이 윗니 잇몸(alveolar ridge)에 튀기듯이 닿았다 떨어지면서 발음되는 압축 부분이 지극히 짧은 파열음이다.

이 음은 모음 사이에 오는 ‘다리’의 ‘ㄹ’과 같아 water의 t를 [ɾ]로 발음하면 된다. 이 음은 오래 전에 발견된 것인데도 아직도 water의 /t/를 [ɾ]로 발음한다고 기술한 베스트셀러가 많은 것을 보면 영어 발음교육에 문제가 많음을 알 수 있다.

#### 6.6. [r, ʃ, ʒ, dʒ, tʃ]

이들 자음은 원순성이 있는 자음이다. 김대원(1996, p.67)에서는 she의 [ʃ]는 뒤에 오는 모음이 전설고모음으로 평순 모음이기 때문에 입술을 둥글게 하지 말고 발음하라고 하는데 미국 영어를 하는 원어민의 발음을 보면 원순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right의 [r] 뒤의 모음도 평순 모음이나 [r]음은 원순으로 발음된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앞의 자음이 뒤의 모음에 약간의 원순성을 부여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she[ʃi:]를 [ʃwi:](모음은 일반 사전의 발음기호임)로 발음해서는 안된

다. 그렇다면 둘의 차이점은 뭘까? [i:]는 [ʃ]를 발음할 때 원순성이 [i:] 모음이 발음되는 동안에 지속되어 입술의 변화가 없으나 [ʃwi:]는 입술이 [w]의 영향으로 처음부터 아주 동그랗게 되어 [ʃw]까지 지속되다가 [i:]를 발음할 때 원순성이 없어진다. she의 [ʃ]를 입술을 약간 동그랗게 하고 발음하라고 하면 [ʃwi:]와 같이 발음하는 사람이 많으니 이 차이점을 잘 인식시켜야 한다.

[ʃ] 발음은 모 종교의 교주가 설교할 때 ‘믿습니까?’의 ‘습’의 ‘ㅅ’ 대신에 자주 사용하는 말이라 흉내를 여러 번 내면 우리말 [ㅅ]과 어떻게 다른가를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ʃ]가 어떻게 발음되는지 익히고 나면 우리말의 다른 모음 앞의 [ㅅ] 대신에 [ʃ]를 넣어 발음하는 연습을 한다.

[dʒ]는 우리말 ‘자다’의 [ʒ] 대신에 [dʒ]를 넣어 발음하면 우리말과는 달리 처음부터 입술을 약간 동그랗게 하고 유성음이라 ‘자다’의 바보 발음과 같다.

[ʒ]를 우리말 ‘자다’의 [ʒ] 대신에 [ʒ]를 넣어 발음하면 이중 바보의 발음 같다. 유성음이라 바보 같고 처음부터 공기가 새어나오니까 더욱 바보 같다. [dʒ] 발음을 익히고 나면 같은 위치에서 처음부터 공기가 새어 나와야 한다는 최소한의 것만 가르치면 된다.

[tʃ]는 우리말 ‘차다’의 [tʃ] 대신에 넣어 발음해 주고 따라하게 하면 된다. 이 발음은 처음부터 입술을 약간 동그랗게 하고 ‘차’ 발음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는 점만 가르치면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발음이 정확한지 판단할 수 있다.

## 6.7. 받침

at first와 같이 음절말음이 폐쇄음이고 다음 음절의 초성이 자음이면 빠른 발음에서는 이 음절 말음을 받침으로 발음한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조건에 의해 발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I couldn't change it., a locked door의 ldn't[dnt], cked[kt]를 받침으로 전부 발음하기는 아주 어렵다. [dnt]를 받침으로 발음하는 방법은 우선 could까지만 ‘쿨’(물론 영어음으로)과 같이 발음시켜 혀끝이 윗니 잇몸에 붙으면서 입안에 공기가 가득 차는 것을 느끼게 한다. 다음 단계로 혀를 윗니 잇몸에 붙인 채 ‘은’하고 발음한다. 이 때 실제로 모음 ‘으’는 발음되지 않는다. 이 발음은 코로 공기가 나가면서 계속 발음된다. 마지막으로 혀끝은 윗니 잇몸에 계속 붙인 채 코로 나가는 공기를 막으면 입안에 다시 공기가 가득 차 압축된다. 이 때 다음에 오는 change를 발음하기 위해 입안에 공기를 압축시킨 채 혀끝을 떼게 되면 파열이 일어나 /t/가 받침으로 발음되지 않기 때문에 입안에 압축된 공기를 목안으로 빨아들여 식히고 change 발음을 해야 한다. a locked door의 cked[kt]를 받침으로 발음하는 방법은 우선 lock을 ‘락’(영어음으로)과 같이 발음한다. 우리말 ㄱ 받침과 같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락’ 할 때 붙은 혀를 떼기 전에 혀끝을 윗니 잇몸에 붙이고 ‘락’할 때 붙은 혀를 떼면, 터져 나온 공기가 혀끝과 윗니



잇몸에 의해 다시 딱혀 입안에 압축된다. 이를 확인하려면 혀끝을 떼어 보라. 그러면 [t]음이 난다. 이렇게 터뜨리지 말고 입안에 공기를 압축시킨 채 잠시 머물다가 입안의 공기를 목안으로 빨아들여 압축을 해소한 뒤 혀끝은 그대로 붙인 채 door의 /d/를 발음한다.

## 6.8. 이중모음

[ai, ei, ou, au], 등 영어의 이중 모음은 하강조이나 우리말은 수평조의 독립된 두 모음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영어와는 반대로 상승조를 취한다. 첫 음은 강하고 길게 둘째 음은 약하고 짧게 하는 것을 하강 이중모음이라고 하고 첫 음을 약하고 짧게 둘째 음을 강하고 길게 하는 것을 상승 이중모음이라고 한다. 우리말은 상승 이중모음이든 독립된 두 모음이든 두 번째 모음을 강하고 분명하게 발음하기 때문에 이를 영어 발음에 무의식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영어 발음이 아주 어색해진다. 우리말 ‘오후’와 영어 oh!는 모두 대략 [ou]로 표기할 수 있으나 영어의 oh를 ‘오후’와 같이 발음하면 아주 어색하게 된다. 영어문장 속에서 [ei], [au] 대신에 각각 ‘에이!’, ‘아우’의 억양을 넣어 발음해 보고 어떻게 다른지 느껴 보라.

발음은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영어의 이중모음 중에서 예를 들어 how를 보통 속도로 발음하면 [하우]와 같이 발음하나 How much I love you?를 아주 빠른 속도로 발음하면 두 번째 음이 생략되고 첫 음이 약간 길어져 How를 [하]와 같이 발음한다. I'll be there의 I'll도 빠른 발음에서는 [ai]의 [i]가 생략되고 [아으]처럼 들린다. again의 [ei]는 어떤 속도의 발음에서도 [i]를 생략할 수 있다.

영어의 이중 모음은 하강조로 첫 음은 강하고 길게 둘째 음은 약하고 짧게 하는데 우리말과 어떻게 다른지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발음을 시켜 알게 해야 하고 빠른 발음에서는 둘째 음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 7. 결론

영어발음교육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음성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학생, 심지어는 초등학생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단순히 영어만 잘한다는 사실만으로 원어민이나 외국유학자가 훌륭한 영어발음 선생이 될 수는 없으며 영어음성학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하고 학생이 하는 틀린 발음을 모방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영어발음도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배우는 학생이 하는 말에 대한 음성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그 말 속에서 영어의 발음과 같은 음, 혹은 유사음이 어떤 경우에 나는지, 영어의 어떤 발음이 어려운지를 알 수 있다.

음성학을 단순히 이론 중심으로 가르칠 것이 아니라 전문 지식이 없는 학습자

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한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혼자 공부할 수 있게 할 수 있겠는가를 고려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영어발음교육이 발전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낙중(1991), 경남 진주방언의 이중모음에 관한 연구 -영어발음교육을 위하여-, 『영미어문학』 7, 27-47, 영미어문학회.
- 김대원(1996), *Hearing Power and Phonetics*, Pusan: Pusan National University Press.
- 민병철(1994), 『민병철영어발음법』, 민병철생활영어사.
- 이현복(1974), 영어 음성학 교육의 몇 가지 문제 발음, 『영어영문학』 51, 513-521, 영어영문학회.
- 이현복(1982), 영어(4) 밝은 1과 어두운 1, 『말소리』 5, 51-52, 대한음성학회.
- 정인석(1999), 『피짜강사 정인석의 영어한풀이』, 동아일보사.
- 김 릹, 오경은(1999), 『릭 김의 미국 영어발음 무작정 따라하기』, 도서출판길벗.
- 하광호(1996), 『영어의 바다에 헤엄쳐라』, 에디터.
- 홍 헨리(1999), 『헨리 홍 말문트기 영어구구단』, 학원사.
- Wells, J. C. and Colson G. (1971), *Practical Phonetics*, London: Pitman.

접수일자: 2001년 5월 3일

게재결정: 2001년 5월 31일

▶ 강낙중(Nak-Joong Kang)

주소: 660-750 경남 진주시 가좌동 산100번지

소속: 연암공업대학 외국어과정실

전화: 055) 751-2090, 011-854-9170,

E-mail: kangnj@bjo.yonam-c.ac.kr